

“장흥~득량도~고흥 연륙교 추진해야”

김승남 “전남도 추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포함돼야”

섬-해양 관광자원 하나로 묶어 득량만권 관광거점 발돋움 계기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 장은 19일 ‘전남도가 적극 추진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장흥 수문과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장흥~고흥간 연륙교 사업 추진은 지난날 13일 장흥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당원에 의한 정책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채택된 아래로부터 제안된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전남도와 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간 당정책회의에서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장흥~득량도~고흥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륙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지역간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득량만권 4개 군이 참여하는 민간 추진기구를 곧 발족하고, 전남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정간에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장흥군·고흥군 지방의원, 지역주민들과 연륙교 사업추진 대상지를 여선을 타고 직접 답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고흥 녹동에서 장흥간 거리가 약 100km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며 “연륙교가 완공되면 거리가 10km 이내로 줄어들고, 시간도 10분대로 단축될 뿐 아니라 섬-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남해안권을 관광거점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흥=한은섭 기자

곡성군,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획득

곡성군이 ‘곡성토란’ 지리적 표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획득했다.

국내에서 토란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획득한 것은 곡성군이 전국 최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곡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토란에는 ‘곡성토란’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유명도 및 역사성이 충분한지, 상품의 특성이 지역의 토질이나 기후 등의 지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곡성토란’은 지리적 표시를 인정 받기 위해 역사성과 토란 관련 시설 현황, 향후 ‘곡성토란’ 육성방안 등

생산, 관리, 지리적 연계성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곡성은 국내 최초로 토란을 상업적으로 재배한 지역이다. 또한 곡성토란은 전국에서 가장 알이 굵고, 비싼 값에 팔리며 명품 토란으로 알려져 있으며, 멜라토닌, 식이섬유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소화불량, 변비, 불면증, 면역기능 강화에 효과가 좋다.

곡성군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토란의 지속가능한 품질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곡성토란대학, 곡성토란생산자 세미나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곡성군 토란 생산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곡성 토란의 브랜드 가치와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향후 곡성토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포장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토란의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토란이 ‘곡성토란’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내시장에서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6일 개막...국내 유일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미래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의 e-모빌리티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5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유일의 e-모빌리티 중소기업 전문 산업전시회다.

e-모빌리티는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전기운반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시승하고 체험하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종합마케팅장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e-모빌리티 연관 업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해 첨단 기술을 발표하고, 학술행사를 열어 산업 트렌드를 공유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난 18일 이승욱 강진군수의 마을 일관 기계화 사업 현장방문 모습.

강진군 마을 쪽분리 자동화시스템 ‘대박’

강진군이 올해 작전면 마을 공선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일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 일관 기계화 사업은 마을 쪽분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으로 일일이 마을 쪽을 분리하던 것을 기계화하는 사업이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전남

군 담당자에 따르면 마을 쪽분리 자동화 세트는 건조된 마을을 3번의 쪽분리를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정갈하게 처리하는 한편 크기 선별과 껍질 수거까지 윈스톱으로 진행되어 획기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작전면 현장을 방문한 이승욱 강진군수는 “매년 여름철 마을 종구 쪽분리 작업은 마을 재배 농민들의 손마디 관절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골치 아픈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동화 기계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마을 쪽분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기계화를 도입해 고령화 된 농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용 마을 쪽분리 시스템, 농업인들 ‘주목’

수작업 대비 20배 이상 능률 향상...고용 효과는 덤

도 공모사업으로 군비 포함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6일 작전면 마을공선회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 마을 종구 쪽분리 작업의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혁신적인 노동력 절감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수작업으로 마을을 쪽분리하는 경우 한 명이 하루 40~50kg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지만, 쪽분리 시스템의 경우 하루 평균 6톤 이상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1인 작업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배 이상 효율을 높이는 결과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